

貶謫時期 黃庭堅의 詞 창작 특징

김 은 경*

<目次>

- | | |
|-------------------|-----------------|
| I. 들어가며 | IV. 婉約風의 艷詞 창작 |
| II. 제재 및 내용 확대 | V. 나가며 |
| III. 다양한 填詞 방식 활용 | |

I. 들어가며

蘇軾의 제자이자 江西詩派의 領袖인 黃庭堅은 治平 4年(1067) 23세에 진사에 급제한 후, 元豐 8년(1085) 秘書省校書郎으로 임명되면서 汴京에서의 정치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哲宗이 친정을 시작하면서 烏臺詩案에 연루된 舊派의 중심 인물들은 좌천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황정견 또한 그가 元祐 年間に 편찬한 《神宗實錄》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는 죄명을 얻어 紹聖 元年(1094) 涪州別駕(지금의 四川省 涪陵)로 좌천되어 그 다음 해에 黔州(지금의 重慶市 彭水)에 안치되었다. 蜀中 유배지로 좌천되면서 그는 험난한 蜀地의 환경을 “일백여덟 굽이의 길을 손잡고 올랐는데, 꼬불꼬불한 산길이 지금도 꿈을 끈 것 같다.”¹⁾고 묘사하였다. 紹聖 4년(1097)에는 그의 이종사촌 張向이 提舉夔州路平常으로 배치되면서 戎州(지금의 四川省 宜賓市)로 이동하라는 조정의 조서를 받아, 다음 해 元符

* 경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1) “一百八盤携手上, 至今猶夢繞羊腸.” 鄭永曉 整理, 《黃庭堅全集輯校編年》, 江西人文出版社, 2008, 1130쪽.

元年(1098) 3월, 黔州를 떠나 6월 戎州에 도착하였다. 元符 3년(1100) 哲宗이 죽고 徽宗이 즉위하자 정국의 변화로, 좌천되었던 舊派들이 재등용되어 황정견 또한 그해 12월 戎州를 떠나 東歸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崇寧 2년(1103) 11월, 황정견은 陳舉와 尚書左丞 趙挺之의 모함을 받아 다시 제명되어 宜州(지금의 廣西省 宜山)로 좌천되었다. 근 10년간의 긴 유배 생활로 몸이 약해지고 잔병이 많았던 그는 결국 崇寧 4년(1105) 9월 유배지 宜州에서 삶을 마감하게 된다.

황정견의 貶謫은 그의 詩文 창작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당시 그의 스승이자 벗인 蘇軾을 포함한 蘇門들은 政爭에 휘말려 폄적을 가게 되었고, 자신들이 쓴 詩文이 또다시 문제가 될까 염려하여 글을 쓰지 않으려 했으며 황정견 또한 스스로 시문 창작을 엄격히 자제하였다.

그가 紹聖 4년(1097) 黔州에서 瀘州知州 王獻可에게 보낸 서신 〈與王瀘州書〉를 보면 “스스로 지은 죄명을 다시 씻을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이 보고 단지 빌미가 될까 걱정되어, 그런고로 비록 평소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라도 불초한 자를 잊을 수 있도록 감히 書通할 수 없었다.”²⁾고 하였다. 또 紹聖 5년(1098) 戎州에서 쓴 〈與東川提舉書〉에서는 “그러므로 가까운 가족이나 오랜 벗이 아니면 서신을 주고받을 수 없었고, 또 죄가 點染되어 혐의를 받지 않기 위하여 글을 쓰려고 하지 않았다.”³⁾고 하였다.

莫礪鋒은 황정견의 인생을 전기·중기·후기 3부분으로 나누어 시기별 詩 창작 현황과 특징을 논하였는데, 그는 황정견의 1878首의 詩 가운데 후기, 즉 폄적 후(紹聖 元年~崇寧 4년) 창작한 작품은 397首로 전체 약 21%라고 하였다.⁴⁾ 이와 달리, 황정견의 詞 총 179首 중 편년을 알 수 있는 108首 가운데 같은 시기에 전사한 작품은 총 89首로 전체 약 50%를 차지한

2) “自以罪戾不復可湔祓, 所過人視之, 唯恐為渠作祟, 故雖平居親愛能忘其不肖者, 亦不敢以書通.”, 같은 책, 785쪽.

3) “故非至親至舊可以通書, 而又不以罪譴點染為嫌者, 未嘗敢修箋記.”, 같은 책, 851쪽.

4) 莫礪鋒, 〈論黃庭堅詩歌創作的三個階段〉, 《文學遺產》第三期, 1995, 72쪽.

다.5) 첫 펴적지인 黔州에서의 詩詞 창작 현황만을 보자면, 詩는 19首로 전체의 1%에 불과하고 詞는 28首로 전체 16%를 차지한다.

펼적 후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창작한 작품수에 따른 장르별 비율로 보았을 때 펴적지를 떠돌며 보낸 10년 동안 詞 창작 활동이 詩보다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치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時期	作品	詩	詞
前期 : 청년 시기~元豐 8년 5월(1085)		1062(56.6%)	14(7.8%)
中期 : 元豐 8년 6월~元祐 8년(1093)		419(22.3%)	7(3.9%)
後期 : 紹聖 원년(1094)~崇年 4년(1105)		397(21.1%)	89(49.7%)
未編年			69(38.5%)
합 계		1878	179

즉, 황정견은 烏臺詩案이라는 文字獄을 겪은 후 정치적으로 구애받지 않는 詞를 주요 창작 대상으로 삼았으며, 그의 펴적은 詞가 詩를 대체하게 된 전환점이 되어 詩歌 창작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는 조카 洪芻에게 보낸 〈答洪駒父書〉에서 “나는 紹聖 이전에 문장을 짓는 법을 몰랐다. 옛날에 지은 것을 가져다 읽어보니 모두 가소로웠다. 紹聖 이후에 비로소 문장을 쓰는 법을 알게 되었으나 늙고 병들고 게을러 글을 쓸 수가 없다.”6)고 하여 자신의 작품을 펴적생활을 시작한 紹聖 전후로 나누어 紹聖 후 자신의 文風이 변했음을 직접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본고는 황정견이 貶謫時期에 填詞한 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그 시기 詞 창작에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5) 馬興榮, 祝振玉 校注, 《山谷詞》의 편년을 참고하여 산출한 통계이며, 補遺와 存疑 작품은 총 작품 수에서 제외함. 上海古籍出版社, 2001.

6) “老父紹聖以前不知作文章斧斤, 取舊所作讀之, 皆可笑. 紹聖以後, 始知作文章, 但以老病惰懶不能下筆也.” 鄭永曉 整理, 앞의 책, 733쪽.

II. 제재 및 내용 확대

편적시기에 황정견이 전사한 사의 제재와 내용은 편적생활의 감회, 가족들과의 정, 벗들과의 우정, 후학들에 대한 가르침, 영물, 교유 등 다양하다.⁷⁾ 이러한 여러 가지 제재 가운데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점은 편적 지역의 특성과 풍습을 노래함으로써 詞의 제재 및 내용을 확대한 점이다. 그러므로 본 절에서는 제재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작품들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王士禛은 《花草蒙拾》에서 “《草堂》에 실려 있는 山谷의 〈品令〉과 〈阮郎歸〉 2수는 모두 茶를 읊은 작품이다. 내 생각에는 황정견의 작품집에 실려 있는 茶詩가 가장 많고 또한 가장 정교하다.”⁸⁾고 황정견의 茶詩를 높이 평가하였다. 황정견이 茶를 제재로 지은 詩는 총 53수, 詞는 총 11首가 있으며 북송문인 가운데 그 작품 수가 가장 많다.⁹⁾ 그는 편적 후 蜀地의 다양한 제재를 활용하여 填詞하였으며 그중 하나가 바로 촉지의 특산물인 茶이다. 먼저 紹聖 3년(1096) 黔州에 유배되어 있을 때 지은 〈踏莎行〉을 보자.

畫鼓催春,	북소리는 봄을 재촉하고,
蠻歌走餉.	蠻歌 소리에 밥을 나르네.
火前一焙爭春長.	한식 전 뒸운 화전차는 봄을 다투네.
低株摘盡到高株,	낮은 나무부터 높은 나무까지 여린 싹을 다 따고,
高株別是閩溪樣.	높은 차나무 잎은 특히나 閩溪의 차잎 모양이네.

7) 趙文煥의 《黃庭堅貶謫文學研究》(南京師範大學博士, 2016)에서는 편적시기 작품들의 제재를 謫居生活, 親情慰藉, 社友感懷, 傳道授業, 咏物情懷로 나누었으며, 肖艷華의 《黃庭堅貶謫巴蜀時期詩詞研究》(重慶工商大學碩士, 2012)에서는 편적사의 제재를 貶謫感懷, 親情, 咏物, 風土人情, 交游로 분류함.

8) “草堂載山谷品令·阮郎歸二闕, 皆詠茶詩作. 按黃集詠茶詩, 最多最工.” 唐圭璋編, 《詞話叢編》, 中華書局, 2005, 681쪽.

9) 張承鳳, 〈黃庭堅筆下的黔州茶道〉, 《中華文化論壇》 第10期, 2016, 134쪽.

碾破春風,	봄바람 속에 찻잎을 뺏으니,
香凝午帳,	휘장에 향기가 가득하고,
銀瓶雪袞翻匙浪.	銀瓶에 담긴 찻물 소용돌이치며 번득이는 파도가 치네.
今宵無睡酒醒時,	오늘 밤 술이 깬 후 잠들지 못하니,
摩圍影在秋江上. ¹⁰⁾	摩圍山의 그림자 秋江 위를 비추네.

이 시는 당시 巴蜀 사람들이 찻잎을 채집하여 차를 만드는 전 과정을 노래한 작품이다. 상편에서 ‘蠻歌’를 부르며 찻잎을 따는 장면과 찻잎으로 차를 제조하는 모습을 묘사했다. 하편에서는 완성된 차를 시음하는 모습과 함께 작가의 심태를 표현하였다. 작가는 “오늘 밤 술이 깬 후 잠들지 못한다.(今宵無睡酒醒時)”고 하며 펄적 후 쉽게 잠들지 못하는 근심스러운 마음을 나타내었다. 작가는 새로 만든 차를 시음하며 내심 가득한 시름을 안고 있다. 이러한 茶詞는 蜀地의 민속을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다. 차를 마시는 풍속을 기록함과 동시에 차를 제조하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묘사하면서 찻잎을 제조하여 마시는 일상생활을 그대로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같은 시기에 지은 〈阮郎歸〉에서도 당시 茶 제조 과정을 엿볼 수 있다.

黔中桃李可尋芳,	黔州 복숭아, 오얏나무에 꽃을 찾고,
摘茶人自忙.	찻잎을 따느라 사람은 절로 바쁘네.
月團犀鬪圓方,	흰 月團茶와 鈔茶는 둥글고 모남을 겨루고,
研膏入焙香.	전차에 찻잎 뒤는 향을 입히네.

青箬裹,	조릿대 꾸러미
絳紗囊,	붉은 천 주머니,
品高聞外江.	품질이 높아 長江 밖까지 소문이 났네.
酒闌傳盃舞紅裳,	거나한 술자리 술잔을 돌리며 紅裳羽衣曲의 춤을 추네,
都濡春味長. ¹¹⁾	都濡의 春茶 맛이 그지없네.

10) 馬興榮、祝振玉 校注, 《山谷詞》, 上海古籍出版社, 2001, 197쪽.

11) 같은 책, 196쪽.

이 작품 또한 차를 만들고 시음하는 전과정을 적은 작품으로, 당시 제조한 茶餅의 외형과 포장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상편에서는 찻잎을 따서 茶餅을 만들었는데 그 색은 흰색을 띠며 둥근 모양을 하고 있다. 하편에서는 茶餅을 대나무 잎으로 싸고 붉은 천 주머니로 포장한 것을 묘사하였다. 푸른 대나무잎으로 차를 싸는 방식은 蔡襄의 《茶錄》에서도 기록되어 있다. 즉 “茶餅을 보관하는 집에서는 대나무 잎으로 싸서 焙籠 안에 넣어두고 이삼일에 한 번씩 불로 채운과 같은 온도로 말려 습기를 없애야 한다. 만약 불이 세면 차가 타서 먹을 수 없게 된다.”¹²⁾라고 하여 작품 속 이와 같은 방법이 북송시대에 성행했던 차 보관법임을 엿볼 수 있다.

차와 더불어서 荔枝 또한 巴蜀 지역의 중요한 특산물 중 하나이다. 《蜀中廣記》에 “蜀의 荔枝는 瀘州와 叙州(戎州)의 것이上品이며 그 다음이 涪州이고 그 다음이 合州이다.” 또 “峯巖山은 宜賓(戎州) 서쪽 백리 밖에 있다. 산비탈에 여지가 길게 이어져 심겨있는데, 모두 廖氏네 것이다.”¹³⁾라고 기재되어 있다. 《輿地紀勝》에서도 “定夸山(峯巖山)宜賓縣 서쪽 백리에 있다. 산비탈에 여지가 길게 이어져 심겨있는데, 모두 廖氏네 것이다.山谷이 지은 〈廖致平家綠荔枝〉는 바로 이 산에서 난 것이다.”¹⁴⁾라고 하였다.

황정견도 元符 3年(1100) 12일(戊寅)에 “戎州 태수 劉廣之가 손님과 동료를 데리고 와 鎮江亭에서 연회를 배풀었는데 함께 荔枝를 맛보았다.”¹⁵⁾

12) “故收藏之家以蔞葉封裹入焙中，兩三日一次用火，常如人體溫溫，以御濕潤。若火多，則茶焦不可食。” 葉羽 編著，《茶書集成》，黑龍江人民出版社，2001，24쪽.

13) “蜀中荔枝，瀘·叙之品爲上，涪州次之，合州又次之。”，“又云，峯巖在宜賓西百里。山坡荔枝連袤，多屬廖氏。” 《文淵閣四庫全書》 第592冊，臺灣商務印書館，1983，59쪽. 叙州는 宋 政和 年間に 戎州를 叙州로 하고 宜賓을 관리함.

14) “定夸山在宜賓縣西百里。山坡荔枝連袤，多屬廖氏。山谷所賦〈廖致平家綠荔枝〉即此山所出也”。王象之 撰，《輿地紀勝》 卷163 〈潼川府路·叙州·景物下〉 第5冊，中華書局，1992，4409쪽.

15) “五月十二日(戊寅)，戎州太守劉廣之率賓僚宴飲于鎮江亭，并品嘗荔枝。” 鄭永曉 著，《黃庭堅年譜新編》，社會科學文獻出版社，1997，321쪽.

라고 〈戎州鎖水磨崖留題〉를 지어 戎州에서 여지를 맛본 일을 기록하였고, 같은 해 戎州에서 지은 〈望遠行〉의 詞題에서도 馬湖(지금의 重慶市 彭水縣)의 荔枝를 좋아한다고 직접 적어두었다.

〈望遠行〉 勾尉有所畀, 爲太守所猜. 兼此生有所愛, 住馬湖. 馬湖出丁香核荔枝, 常以遺生, 故戲及之.

망원행 - 勾离宗 현위가 결눈질하다 태수에게 의심을 샀다. 또 한평생에 좋아하는 바가 있어 馬湖에 거주했다. 馬湖에는 丁香子같은 荔枝가 나와 항상 남아 재미로 짓는다.

自見來,	내가 보기에
虛過卻、好時好日.	좋은 시절을 헛되이 보냈네.
這訖屎黏膩得處煞是律.	이곳 여지 산지에 식욕에 대한 戒律이 많네
據眼前言定,	눈앞에 있는 것만 해도
也有十分七八.	열중 일곱 여덟이네.
冤我無心除告佛.	원통하지만 부처에게 고할 마음이 없네.

管人閒底,	樂師는 한가롭고
且放我快活.	나는 즐겁네.
便索些別茶祇待,	또 다른 茶를 조용히 기다리리,
又怎不遇儂花映月.	또 어찌다 좋은 시절을 만나지 못했는지.
且與一班半點,	다시 조금 주더라도,
只怕你沒丁香核. ¹⁶⁾	단지 좋은 荔枝가 없을까 걱정이네.

이 시는 작가가 직접 여지 산지에 가서 보고 맛본 것을 기록하였다. 이사를 통해 馬湖의 여지는 크고 씨가 작으며 붉은색 과육이 풍부한 좋은 품질임을 알 수 있다. 이 작품 외에도 元符 2년(1099) 응주에서 전사한 〈醉落魄〉 하편에서 “安樂, 春泉, 玉醴, 荔枝는 좋은 술이네.(安樂春泉, 玉醴荔枝綠)”라고 하여 여지로 술을 빚어 마시는 당시 생활을 엿볼 수 있으

16) 馬興榮、祝振玉 校注, 앞의 책, 48쪽.

며 또 〈採桑子〉 상편에서도 “荔枝는 여울 위 일천 기병을 머무르게 하고, 복숭아나무 오얏나무 그늘 무성하네.(荔枝灘上留千騎, 桃李陰繁.)”라고 하였다. 이 외에 黔州와 戎州에서 6년간 유배 생활을 마치고 建中靖國 元年(1101) 東歸하던 중 荆南(지금의 湖北省 荊州)을 지나갈 때 蜀地의 여지를 생각하며 〈浪淘沙〉를 지었는데 “예전 과축에 꺾적 되었었지, 여지 열매 친히 가져다가, 차가운 과육이 눈부시게 비추니 荔枝 중 최고라네.(憶昔謫巴蠻, 荔子親攀. 冰肌照映柘枝冠.)”라고 하였다.

이러한 작품으로 작가가 촉지의 여지를 얼마나 좋아했고 촉지를 떠나가서도 많이 그리워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촉지의 荔枝 생산지와 술을 담아 마시는 당시 과축 지역의 생활도 엿 볼 수 있다.

특산물 외에도 황정견은 과축 지역의 민속 문화를 사의 제재로 사용하였다. 이 또한 당시 蜀地를 이해하는 중요한 사료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紹聖 4년(1097) 黔州에서 전사한 〈玉樓春〉을 보자.

黔中士女遊晴晝,	검주의 士女들 맑은 낮 노닐고
花信輕寒羅綺透.	꽃이 피었다는 소식에 찬 기운이 비단옷을 파고든다.
爭尋穿石道宜男,	다투어 뚫린 돌을 찾아 자손이 많기를 축원하고,
更買江魚雙貫柳.	다시 강 물고기 사서 버드나무에 쌍으로 꿰는다.

竹枝歌好移船就,	竹枝歌에 배 띄우기 좋으니,
依倚風光垂翠袖.	바람과 햇살에 의지해 비취색 소매 드리운다.
滿傾蘆酒指摩圍,	가득 따른 노주를 기울이며 摩圍山을 가리키니,
相守與郎如許壽. ¹⁷⁾	그대와 함께 어울리며 이처럼 오래도록 같이 하길.

이 사는 맑은 봄날 남녀가 봄 놀이를 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특히 상편의 두 구 “다투어 뚫린 돌을 찾아 자손이 많기를 축원하고, 다시 강 물고기 사서 버드나무에 쌍으로 꿰는다.(爭尋穿石道宜男, 更買江魚雙貫柳.)”는 자손을 많이 낳길 바라는 巴蜀의 민간 신앙에 대한 기록

17) 馬興榮、祝振玉 校注, 앞의 책, 134쪽.

이다. 당시 검주 사람들은 구멍이 난 돌이 있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믿었다. 또 물고기는 다산을 상징하고 ‘雙’은 길한 숫자이며 ‘柳’는 ‘留’자와 諧音이므로 이 구절 또한 자식을 많이 낳기를 기원하는 당시 巴蜀 지역의 풍습을 보여준다.¹⁸⁾ 사의 하편에서는 남녀가 서로 竹枝歌를 부르며 아름다운 봄빛 아래 술을 마시며 노니는 모습을 적었다.

황정견은 비록 척박하고 황량한 측지에서 유배 생활을 하였으나, 일상 생활 속에서 접한 그 지역의 특색을 제재로 사용하여 작품 제재 및 내용의 폭을 넓혔다. 뿐만 아니라 이 작품들은 당시 측지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史料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Ⅲ. 다양한 填詞 방식 활용

황정견은 비록 조정에서 죄를 짓고 유배된 죄인이었으나 당시 蜀地의 문인이나 관리들은 그를 극진히 대우하였으며 그의 유배 생활을 각별히 배려해 주며 그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았다. 《豫章傳》에서 “후생들과 학문을 닦고 연구하는데 부지런히 노력하고 조금도 나태하지 않아, 兩川 인사들이 앞다투어 그를 따르고 교류하여 그의 가르침을 거쳐 지은 문장들은 모두 볼 만 하였다.”고 하였으며, 《別傳》에서도 “정견은 마음이 담박하여, 편적에 개의치 않았으며, 蜀의 선비들도 그를 존경하고 따르며 교류하여 講學을 싫증 내지 않았다.”¹⁹⁾고 하였다.

이렇듯 황정견은 그 지역 文人, 官吏, 道人, 後學 등 여러 인물들과 교류하며 자연스럽게 作詩의 방법인 唱和를 전사의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紹聖 4년(1097) 黔州에서 지은 〈定風波〉(萬里黔中一漏天)·(自斷此生休

18) 程越, 〈從宋詞看宋代的民俗文化〉, 《群文天地》 第5期, 2012, 38쪽.

19) “《豫章傳》‘與後生講學, 孜孜不怠, 兩川人士爭從之遊, 經公指授, 下筆皆有可觀’, 《別傳》‘庭堅泊然, 不以遷謫介意, 蜀士慕從之遊, 講學不倦.’ 鄭永曉 著, 《黃庭堅年譜新編》, 社會科學文獻出版社, 1997, 291쪽.

問天) 두 수의 詞題에 “高羽 左藏의 운에 차운하다(次高左藏韻)”라고 적어 창화의 대상을 밝혀두었다. 高羽(字는 彦修)는 黔州知州였던 曹譜를 대신해 새로 부임한 관리로 左藏은 左藏庫使이다. 황정견은 〈與王瀘州書〉에서 “새로 부임한 高羽 左藏은, 高丹의 아우로 노련하고 청렴한 사람이며 예전에 또한 場屋(과거 시험장)에 오래 있었다. 쉽게 볼 수 있는 이가 아니다.”²⁰⁾라고 교류한 인물을 기록하였다. 또 元符 2년(1099) 戎州에서 지은 〈鷓鴣天〉(黃菊枝頭生曉寒)에는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 眉山의 은객 史應之가 앞의 운에 화답을 하니, 곧 그 자리에서 그의 운에 화답하다.(坐中有眉山隱客史應之和前韻, 卽席答之)”라고 詞題를 적어 두고 창화하는 대상을 밝혀 두었다. 문인 史應之는 이름이 鑄이며 眉山사람으로 瀘州와 戎州 일대를 유람하면서 황정견과 수시로 만나 서로 唱和하였다고 한다.

이 외에도 그는 꺾적 생활을 하며 그의 스승이자 벗인 蘇軾과 동문인 秦觀의 詞에도 창화하였다. 그는 崇寧 2년(1104) 宜州에 유배되어 衡陽을 지나갈 때 秦觀을 애도하며 〈千秋歲〉(水邊沙外)에 和韻하여 詞를 한 수 지었다. 그 題序를 보면 “少游가 꺾적되어 일찍이 꿈결에 사를 지어 ‘오래된 등나무 그늘 아래 취해 누우니 남북이 어딘지 모르겠네’라고 하고, 마침내 元符 庚辰年 藤州의 光華亭에서 숨을 거두었다. 崇寧 甲申年에 庭堅이 宜州로 보내져 衡陽을 지나는 길에 생전에 남긴 글을 보고 비로소 〈千秋歲〉 詞에 화답하다.”²¹⁾라고 적어 秦觀이 세상을 떠난 날짜와 자신의 행로 및 唱和하게 된 동기를 자세히 기록하였다.

蘇軾의 사에 唱和한 작품으로는 黔州에서 전사한 〈點絳脣〉이 있다.

〈點絳脣〉 重九日寄懷嗣直弟, 時再遊涪陵, 用東坡餘杭九日點絳脣舊韻二首.

20) “新守高羽左藏, 旦之弟也. 老練廉勤, 往亦久在場屋, 不易得也.” 鄭永曉 整理, 《黃庭堅全集輯校編年》, 江西人文出版社, 2008, 784쪽.

21) “少游得謫, 嘗夢中作詞雲 ‘醉臥古藤陰下, 了不知南北’, 竟以元符庚辰死於藤州光華亭上. 崇寧甲申, 庭堅竄宜州, 道過衡陽. 覽其遺, 始追和其〈千秋歲〉詞.” 馬興榮、祝振玉 校注, 앞의 책, 62쪽.

점강순 - 重九일에 아우 嗣直에게 회포를 부치다. 이때 涪陵을 다시 유람하다 동파 〈點絳脣〉 두 수의 운을 쓰다

濁酒黃花,	탁주를 마시고 황국을 보고
畫簾十日無秋燕.	고운 주렴 친 重陽 다음 날 가을 제비 없구나.
夢中相見,	꿈속에서나 서로 만나니
似作枯禪觀.	참선을 하며 보는 듯하네.

鏡裏朱顏,	거울 속 붉은 얼굴
又減心情半.	또 마음이 반으로 줄어드네.
江山遠,	강산은 멀리 있고
登高人健,	높은 곳에 오르는 사람은 건강하니,
寄語東飛雁 ²²⁾	동쪽으로 날아간 기러기에게 말을 전하네.

이 사는 紹聖 4년(1097) 重陽節에 전사한 작품이다. 작가는 소식의 사 〈點絳脣〉 두 수에 나타나는 쓸쓸한 가을날의 느낌과 감동을 자신의 작품에 借用하였다. 사의 상편에서는 중양절에 탁주를 마시고 黃菊을 감상하며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촌 동생 黃叔向을 떠올리지만 꿈에서나마 그를 만날 수 있는 현실임을 안타까워한다. 하편은 흘러가는 세월을 애석해하며 그리운 이와 멀리 떨어져 중양절 높은 곳을 오를 수 있을 만큼 건강하지만 수시로 만날 수 없어 날아가는 기러기에게 안부를 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노래했다. 이 작품에서 비록 작가가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대상이 사촌 동생이라고 하였으나, 멀리 친척들이 살고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며 이렇게 건강할 때에 유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 편안한 만년을 보내고자 하는 작가의 마음을 표현하였다. 이 외에도 元符 2년(1099) 戎州에서 지은 〈南鄉子〉(臥稻雨餘收)와 建中靖國 원년(1101) 荊州에서 지은 〈鵲橋仙〉(八年不見) 또한 蘇軾의 작품에 창화한 詞이다.

황정견은 唱和 이외에도 詩作에서 활용되었던 集句와 櫟括의 방식을 활

22) 馬興榮、祝振玉 校注, 앞의 책, 256쪽.

용하여 전사하였다. 황정건은 元符 2年(1099) 戎州에서 편적생활을 하며 가을의 풍경을 노래한 〈鷓鴣天〉의 詞題에 “重九日集句”라고 적어 集句의 방식으로 전사하였음을 밝혔다.

〈鷓鴣天〉 - 重九日集句

자고천 - 重九日 집구

寒雁初來秋影寒。	가을 하늘 기러기 처음 날아오니 가을 그림자 차갑고
霜林風過葉聲乾。	서리 내린 숲에 바람이 지나가니 나뭇잎 소리 바삭바삭.
龍山落帽千年事，	龍山에서 바람에 모자가 떨어진 건 오래전 일,
我對西風猶整冠。	나는 가을바람을 맞으며 오히려 의관을 바로 하네.

蘭委佩，	蘭은 꿩처럼 아래로 드리우고
菊堪餐。	국화는 먹을직하네.
人情時事半悲歡。	인정과 시사로 생긴 슬픔과 기쁨이 반으로 줄어들었네.
但將醕酒酬佳節，	다만 술에 흠뻑 취하고자 중앙절에 술을 권할 뿐,
更把茱萸仔細看。 ²³⁾	다시 茱萸를 쥐고 자세히 바라보네.

이 詞의 하편 시작 두 구 “蘭委佩，菊堪餐.”은 屈原의 〈離騷〉에서 “강리와 벽지를 몸에 걸쳐 입고, 가을 난초를 꺾어서 허리에 찬다.(扈江離與辟芷兮，紉秋蘭以爲佩.)”와 “아침에는 모란의 이슬방울 받아 마시고, 저녁에는 가을 국화 떨어진 꽃잎 주워서 먹네.(朝飲木蘭之墜露兮，夕餐秋菊之落英.)” 구절을 모아 전사하였다. 또 마지막 2구 “但將醕酒酬佳節，更把茱萸仔細看.”은 杜牧의 詩 〈九日齊山登高〉의 “중앙절 좋은 날에는 다만 흠뻑 취하면 될 뿐, 높은 산에 올라 지는 해를 원망할 필요 없네.(但將醕酒酬佳節，不用登臨怨落暉)”²⁴⁾와 杜甫의 詩 〈九日藍田崔氏莊〉 “내년에도 이 모임 누가 건재할지, 취중에 수유를 쥐고 자세히 바라보네.(明年此會知誰

23) 馬興榮、祝振玉 校注, 앞의 책, 156쪽.

24) 中華書局編輯部, 《全唐詩》, 中華書局, 1980, 5966쪽.

健, 醉把茱萸仔細看)”²⁵⁾ 구절을 모아 填詞하였다. 작가는 詩句를 이용하여 중앙절 가을 풍경을 읊은 全詞의 주제를 이끌어 내어, 비록 前人들의 詩句가 들어가 있지만 하나의 주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처럼 前人들의 詩文 속 일부 구절을 가져다 자신의 작품에 재배열하는 集句와 달리, 한 작품의 이치를 대상으로 작가가 어떤 환경에서 감명을 받고, 어떤 시문과 공감이 형성되어, 자신의 생각한 방식에 따라 그 詩文의 내용을 가공하여 자신이 생각을 寄託한 새로운 작품으로 적어내는 槩括의²⁶⁾ 방법을 사용하여 填詞한 작품도 있다.

紹聖 3년(1096) 黔州에서 지은 <減字木蘭花>는 詞題에서 밝혀 두었듯이 <月夜>²⁷⁾ 한 수를 작품에 槩括하였다.

<減字木蘭花> - 丙子仲秋, 黔守席上, 客有舉岑嘉州中秋詩曰‘今夜鄜州月, 閨中只獨看. 遙憐小兒女, 未解憶長安.’因戲作

감자목란화 - 병자년 중추에 검주 태수 曹譜가 여러 사람을 모은 자리에, 한 객이 岑嘉州의 <中秋>詩를 들어 “오늘 밤 鄜州에 뜬 달, 규중에서 홀로 보겠네. 멀리서 어린 자식들을 가련히 여기니, 장안을 그리워하는 마음 이해하지 못하겠지.”라고 하여 재미 삼아 짓다.

舉頭無語,	머리 들어 하늘을 보고 말이 없네,
家在月明生處住.	집은 밝은 달 생겨나는 곳에 있네.
擬上摩圍.	摩圍山에 올라,
最上峰頭試望之.	가장 높은 봉우리에서 한번 고향을 바라보네.

偏憐絡秀,	유독 가련한 낙수,
苦淡同甘誰更有.	고락을 함께하는 이 누가 또 있으리.
想見牽衣.	옷자락을 붙잡고 울던 일 생각하네.

25) 같은 책, 2403쪽.

26) 于廣杰, <蘇軾文人集團研究>, 河北大學博士, 2013, 154쪽.

27) 詞題에서 岑嘉州(唐岑參)의 <中秋>라고 저자와 작품명을 적어두었으나, 실상이 작품은 杜甫의 詩 <月夜>임.

月到愁邊總未知²⁸⁾ 달빛이 시름 가에 이르러도 줄곧 알지 못하네.

이 詞는 작가가 중추절 높은 곳에 올라 달을 바라보며 고향을 그리워하며 하루빨리 가족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적은 작품이다. 상편에서 작가는 摩圍山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 가족이 있는 고향을 바라보고, 하편에서는 자신과 동고동락한 첩 絡秀와 자식들을 회상하며, 하늘의 밝고 둥근 달은 이러한 작가의 시름을 끝없이 불러일으킨다.

杜甫의 〈月夜〉 또한 安史의 亂을 배경으로 지은 작품으로 달밤을 제재로 鄜州에 둔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간절한 정을 노래한 작품이다. 작가는杜甫의 詩意를 사에 櫛括하여 또 다른 정취를 자아내었다. 다음으로 元符2년(1099) 戎州에서 전사한 〈訴衷情〉를 보자.

〈訴衷情〉 - 在戎州, 登臨勝景, 未嘗不歌漁父家風, 以謝江山. 門生請問: 先生家風如何? 爲擬金華道人作此章.

소충정 - 戎州에서 이름난 산수를 유람하며 진정 漁父家風으로 노래하며 강산으로 떠났다. 문생들이 선생의 가풍이 어떠한가 물으니, 金華道人の 사를 본떠 이 사를 쓰다.

一波纔動萬波隨,	한 번 물결이 치니 수많은 물결이 뒤이어 일어나고
蓑笠一鉤絲.	도롱이와 삿갓 쓴 어옹이 낚시줄을 드리웠네.
金鱗政在深處,	물고기는 바로 물 깊은 곳에 있으니,
千尺也須垂.	천척 깊이라도 반드시 낚으리.

吞又吐,	삼켰다가 다시 뱉어내니
信還疑.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上鉤遲.	낚싯바늘에 걸기 더디네.
水寒江淨,	차가운 물 맑은 강,
滿目青山,	눈 앞엔 온통 푸른 산이 펼쳐져,
載月明歸. ²⁹⁾	밝은 달빛 싣고 돌아오네.

28) 馬興榮, 祝振玉 校注, 위의 책, 229쪽.

이 詞의 상편은 어부가 차가운 강에서 홀로 낚시를 하는 모습을 마치 한 폭의 그림을 그리듯 묘사하였으며, 하편에서는 어부가 눈을 감고 집중하여 낚시하는 모습과 그 가운데 자연을 바라보는 즐거운 마음을 표현하였다. 이 작품은 題序에서 말한 金華道人的 詞, 즉 張志和의 〈漁歌子〉와 船子和尚의 〈撥棹歌〉를 槩括하여 편집 후 강가에서 은거하며 낚시하는 자유로운 생활을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작품의 구성과 의미는 〈撥棹歌〉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漁歌子〉의 변하지 않고 엇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漁父家風을 세속에서 벗어나 돈오의 경지에 이르는 정신세계로 승화시켰다.

이상의 唱和, 集句, 槩括은 모두 詩作에서 시작되어 점차 詞의 填詞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唐宋文人들의 주요 詩歌 창작 방법 중의 하나인 唱화는 북송시기로 접어들면서 詞壇에 자리 잡게 되었다. 集句詞 또한 集句詩의 성행과 동시에 나타나 元豐年間に 유행하면서 사인들이 전사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방식들의 발전과정 중 주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蘇軾과 그의 창작 태도를 수용한 蘇門이다.³⁰⁾ 이들을 거치면서 확대되고 성행하게 되면서 詞文學의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다. 황정견 또한 學蘇의 영향으로 “以詩爲詞”의 창작 태도를 수용하며 특히 편집 후 문풍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전사하였다.

IV. 婉約風의 艷詞 창작

〈碧鷄漫志〉에서는 “晁補之, 黃庭堅은 모두 東坡에게 배웠으나 황정견은 만년에 풍류 생활을 빠져, 고로 疏蕩한 면이 좀 있다.”³¹⁾고 했으며, 〈雨村

29) 馬興榮·祝振玉 校注, 앞의 책, 233쪽.

30) 彭國忠, 《元祐詞壇研究》,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2, 184-185쪽.

31) “晁無咎·黃魯直皆學東坡, 黃晚年開放於狹邪, 故有少疏蕩處.”, 唐圭璋編, 《詞話叢編》, 中華書局, 2005, 83쪽.

詞話)에서는 法秀道人이 황정건의 艷詞³²⁾에 대해 평하기를 “필목으로 음란을 권하면 마땅히 犁舌地獄(불가의 지옥)에 떨어진다.”고³³⁾ 했다. 또한 <賭棋山莊詞話>에서는 “柳永의 잘못은 지나침이고 황정건의 잘못은 속됨이다.”³⁴⁾고 하였다. 이러한 의견은 모두 황정건의 艷詞를 비판한 것으로, 柳永에게서 속됨을 배웠고 그 정도가 유명보다 더 심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황정건은 <小山集序>에서 “풍류 생활의 大雅와 호방한 선비의 鼓吹樂에 부합하는 것은 宋玉의 <高堂賦>나 曹操의 <洛神賦>와 같은 類이고, 그 아래인 것도 어찌 <桃葉歌>와 <團扇歌>보다 못하겠는가?”³⁵⁾라고 艷詞의 가치를 강조하였다.

황정건이 艷詞를 전사한 이유에 대해 楊海明은 “첫째는 사회생활 방면의 원인이다. …… 북송후기 지주계급의 생활은 난잡하였으며 황정건의 생활도 이러한 환경 중에 있어 자연히 피할 수 없었다. 歐陽修·司馬光·文彥博과 같은 名儒重臣들도 모두 香艷小詞를 填詞했다. 둘째는 문학 자체의 원인이다. 북송사단은 蘇軾 이전, 기본적으로 花間·南唐·柳永의 부드럽고 화려하며 경박한 詞風의 세상이었다. …… 황정건이 사풍에 있어서 柳永의 기풍을 이어받은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³⁶⁾고 하였다. 柳永 이후의 송사는 사실상 그의 영향을 받았으며 황정건 또한 그중 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32) 본고에서 언급한 艷詞는 林倩帆의 《北宋“正人艷詞”研究》 제1장의 “艷詞”之義의 정의를 따름. 즉 艷詞의 정의는 隋唐五代時期와 五代北宋後기로 나눌 수 있음. 隋唐五代時期의 艷詞는 남녀 간의 사랑과 그리움을 위주로 표현한 작품을 가리키며, 五代北宋後期の 艷詞는 여성 혹은 남성의 연정 대상을 묘사하는 歌詞를 가리킴. 그 표현 대상은 여성을 위주로 하며 혹은 여인의 섬세한 감정, 戀情의 시름, 여인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器物을 표현 대상으로 함. 이외에도 北宋前期는 특수한 역사적 시기로서 贈妓詞 혹은 歌妓詞도 艷詞에 포함됨. 廣西大學碩士, 2012, 10-11쪽.

33) “魯直少時使酒玩世，喜造纖淫之句。法秀道人誡曰：‘筆墨勸淫，應墮犁舌地獄。’魯直答曰：‘空中語耳。’”，같은 책, 1397쪽.

34) “柳耆卿失之濫，黃魯直失之儉。”，같은 책, 3358쪽.

35) “狹邪之大雅，豪士之鼓吹，其合者高唐，洛神之流，其下者，豈滅桃葉，團扇哉？” 劉琳、李勇先、王蓉貴 點校，《黃庭堅全集》，四川大學出版社，2001，413쪽.

36) 楊海明, <黃庭堅詞淺析>, 《江西社會科學》第四期, 1982, 117-118쪽.

黔州·戎州·宜州 등 폼적지에서도 황정건은 화간사의 전통을 이어받은 염사를 전사하였으며, 紹聖 이후 전사한 貶謫詞 중 9首의 艷詞가 있다.³⁷⁾ 먼저 紹聖 4年(1097) 黔州에서 지은 작품을 보자.

〈憶帝京〉 - 贈彈琵琶妓

억제경 - 비파를 타는 妓女에게 주다

薄妝小鬢閑情素.	얇은 화장 작은 보조개 한적한 마음,
抱着琵琶凝竚.	비파를 품에 안고 멍하니 바라본다.
慢撚復輕攏,	느리게 눌렀다 다시 가볍게 튕기니,
切切如私語.	가늘게 절절하여 속삭이는 듯.
轉撥割朱絃,	활을 돌려 朱絃을 가르니
一段驚沙去.	광풍에 모래가 날리는 듯.

萬裏嫁、烏孫公主.	만리타향에 시집간 烏孫公主(劉解憂).
對易水、明妃不渡.	易水を 마주하고 明妃(王昭君)은 건너지 못하네.
粉淚行行,	눈물이 주룩주룩
紅顏片片,	고운 얼굴 조각조각
指下花落狂風雨.	연주하는 손끝 아래로 거친 비바람에 꽃이 떨어지네.
借問本師誰,	스승이 누구냐고 물으니
斂撥當胸住. ³⁸⁾	비파 가운데를 타고 멈춰 撥木을 거두네

이 사는 한 편의 贈妓詞이다. 상편에서는 비파를 연주하는 기녀의 얼굴과 표정, 연주하는 타법을 묘사하였다. 하편의 첫 구와 둘째 구에서는 어쩔 수 없이 멀리 타향으로 시집을 간 ‘烏孫公主’와 ‘王昭君’의 전고를 사용하여 고향을 그리워하는 여인의 슬픔을 표현하였다. 완약한 풍격의 염사로서 비파를 연주하는 기녀의 심정을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기녀 陳湘에게 쓴 贈別詞 한 수를 보자.

37) 林倩帆, 《北宋“正人艷詞”研究》, 廣西大學碩士, 2012, 56쪽.

38) 馬興榮, 祝振玉 校注, 앞의 책, 51쪽.

〈驀山溪〉 - 贈衡陽妓陳湘

맥산계 - 衡陽 기녀 陳湘에게 보내다

鴛鴦翡翠,	원앙새와 물총새,
小小思珍偶.	잠시 생각하니 귀한 짝이네.
眉黛斂秋波,	눈썹은 먼 산 같고 눈은 가을 파도와 같아,
盡湖南、山明水秀.	산수가 빼어난 호남에서도 최고이네.
俇俇儂儂,	가냘프고 어여쁜,
恰近十三餘,	마치 열서너 살 그녀,
春未透,	봄이 아직 이르지 않아,
花枝瘦,	꽃가지가 앙상하니,
正是愁時候.	한창 근심할 때이네.
尋芳載酒,	술을 들고 그녀를 찾아가니,
肯落誰人後.	이미 누구에게 시집가 있을까 걱정이네.
只恐遠歸來,	단지 걱정스러운 건 멀리서 돌아왔을 때,
綠成陰、青梅如豆.	綠陰이 우거지고 청매실이 콩처럼 되었을까 이네.
心期得處,	마음의 기약을 얻는 곳
每自不隨人,	매사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
長亭柳,	長亭의 버들가지,
君知否,	그대는 아는지 모르는지,
千里猶回首. ³⁹⁾	천리 먼 곳에서 고개 돌려 바라보네.

이 시는 崇寧 4年(1104) 황정건이 東歸하던 중 다시 제명되어 宜州로유 배되어 가는 도중 衡陽(지금의 湖南省 衡陽)을 지나다 기녀 陳湘을 위해 지은 작품이다. 상편에서는 꽃다운 나이의 어린 기녀 진상의 타고난 미모를 그림을 그리듯 묘사하면서 섬세하면서 완곡하게 기녀에 대한 작가의 은근한 정을 표현하였다. 하편에서는 陳湘을 일찍 만나지 못한 아쉬움과 훗날 다시 만났을 때 이미 누군가의 사람이 되어 있진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을 더해 깊은 애착과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였다. 천리 밖에서도 돌아

39) 馬興榮、祝振玉 校注, 앞의 책, 41쪽.

보며 버들가지 꺾어 건내 던 여인의 모습을 떠올리며 기약 없는 이별의 서글픈 심정을 서술하였다. 같은 해에 宜州에 도착하여 전사한 <驀山溪> (稠花亂蕊) 또한 기녀 陳湘에게 보낸 작품으로 사제에서 “의주에 도착하여 진상에게 써서 보낸다.(至宜州作寄贈陳湘)”라고 밝혀두었다. 이 외에도 紹聖 4년(1097) 黔州에서 지은 완약풍의 艷情詞 <玉樓春>(黃金捍撥春風手) (黔中士女遊晴晝)과 崇年 3년(1104)에 전사한 贈妓詞 <阮郎歸>(盈盈嬌女似羅敷) 등이 있다.

이렇듯 황정견은 詞體의 가치를 인정하며 그 본래의 창작 기능과 방식에 충실하였으며 그 결과 펴적 후에도 다양한 주제의 婉約한 풍격의 艷詞를 전사하였다.

V. 나가며

황정견은 烏臺詩案이라는 文字獄을 겪은 후 紹聖 元年(1094) 涪州別駕로 좌천되면서 詩文 창작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紹聖 元年부터 崇年 4년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근 10년간의 펴적 생활 동안 그는 詩보다 詞 창작 활동을 더 활발히 했다. 그러므로 본고는 詩文 창작의 변화를 겪은 貶謫時期의 詞 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貶謫詞의 창작 특징을 분석하였다.

황정견은 비록 황량한 蜀地에서 유배 생활을 하였으나, 일상생활 속에서 접한 茶와 荔枝 및 민속 문화 등 그 지역 특성을 제재로 사용하여 작품의 제재 및 내용의 폭을 넓혔을 뿐만 아니라 당시 蜀地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史料적 가치를 가진 사 작품을 남겼다.

그는 唱和, 集句, 櫟括 등 다양한 방식으로 貶謫詞를 창작하였다. 詩作에서 시작된 이러한 전사 방식은 蘇軾과 그의 창작 태도를 수용한 蘇門을 거치면서 확대, 성행하여 詞文學의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다. 황정견 또한 學蘇의 영향으로 “以詩爲詞”의 창작 태도를 수용하며 특히 펴적 후 문풍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填詞하였다.

또한 황정견은 전통 艷詞의 가치를 강조하며 詞體 본래의 창작 목적에 충실하였으며, 그 결과 펴낸 후에도 다양한 주제의 婉約한 풍격의 사를 전사하였다.

황정견은 펴낸 기간 동안 詞의 제재나 填詞 방식에 있어서 “以詩爲詞”의 詩化적 창작 태도로 填詞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詞體 본래의 “本色當行”을 실현하려는 화간사의 전통을 이어받아 詞化적 창작 태도로도 填詞하였다. 詩化와 詞化의 창작 특징이 공존하는 황정견의 펴낸 시기 詞를 살펴봄으로써 “別是一家”로서의 일면을 고찰할 수 있었으며 詞體가 변화, 발전하는 北宋中後期 詞壇에서 차지하는 그의 중요한 위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 程越, 〈從宋詞看宋代的民俗文化〉, 《群文天地》 第5期, 2012.
- 林倩帆, 〈北宋“正人艷詞”研究〉, 廣西大學博士, 2012.
- 劉琳, 李勇先, 王蓉貴 點校, 《黃庭堅全集》, 四川大學出版社, 2001.
- 馬興榮, 祝振玉 校注, 《山谷詞》, 上海古籍出版社, 2001.
- 莫礪鋒, 〈論黃庭堅詩歌創作的三個階段〉, 《文學遺產》 第三期, 1995.
- 彭國忠, 〈元祐詞壇研究〉,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2.
- 臺灣商務印書館發行, 《文淵閣四庫全書》, 臺灣商務印書館, 1983.
- 唐圭璋 編, 《詞話叢編》, 中華書局, 2005.
- 王象之 撰, 《輿地紀勝》, 中華書局, 1992.
- 肖艷華, 〈黃庭堅貶謫巴蜀時期詩詞研究〉, 重慶工商大學碩士, 2012.
- 楊海明, 〈黃庭堅詞淺析〉, 《江西社會科學》 第四期, 1982.
- 葉羽 編著, 《茶書集成》, 黑龍江人民出版社, 2001.
- 于廣杰, 〈蘇軾文人集團研究〉, 河北大學碩士, 2013.
- 張承鳳, 〈黃庭堅筆下的黔州茶道〉, 《中華文化論壇》 第10期, 2016.

- 趙文煥, 《黃庭堅貶謫文學研究》, 南京師範大學博士, 2016.
鄭永曉 著, 《黃庭堅年譜新編》, 社會科學文獻出版社, 1997.
鄭永曉 整理, 《黃庭堅全集輯校編年》, 江西人文出版社, 2008.
中華書局編輯部, 《全唐詩》, 中華書局, 1980.

<Abstract>

Huang Tingjian passed the Wutai Poetry Case, after about ten years of banishment, the writing of poetry and literature has changed a lot.

At that time, Su Shi and Su Men were worried that their own poems would become a problem again, did not want to write poetry, and Huang Tingjian also strictly restrained himself from creating poetry. From The first year of Shao Sheng to four years of Shao Sheng, until his death, we can see that Ci Writing were more active than poetry. This article is based on Huang tingjian's relegation Ci, research the creative characteristic of relegation Ci.

First of all, if you look at the sanctions and the nature of the content, After he was banished, he used a variety of topics from Bashu. Using the famous specialties of Bashu, tea, lychee, folk culture, and other distinctive features of the area as sanctions, Not only did the work expand the scope of its contents, it also produced works of historical value that made people see the life of the time.

Huang Tingjian also writes the relegation Ci in the way of Chang He(唱和) Ji Ju(集句) and Yin Kuo(櫟括). These forms of writing Ci all begin with poetry, slowly use this way to writing Ci. Su Shi and his disciples were at the center of the beginning and development of this creative mode. He was also accept the creative attitude of “Taking

poetry as Ci(以詩爲詞)” of Su Shi.

Huang Tingjian recognized original value of Ci and was faithful to original creative function and style of Ci. As a result, after he was eventually demoted, he wrote Yan Ci by graceful and restrained genre, it's about a variety of topics.

Huang Tingjian's relegation Ci coexists with the creative characteristics of Shi Hua(詩化) and Ci Hua(詞化). These features allowed him to look at a side called “Bie Shi Yi Jia(別是一家)”, it could confirm his important position once again at the changing and developing period of the Northern Song Dynasty.

Key Words : 黃庭堅(Huang Tingjian), 貶謫詞(Relegation Ci), 詩化(Shi Hua), 詞化(Ci Hua)